



도문 스님은 아침공양을 늘 대중과 함께 발우공양으로 한다.



용성 스님 영정 앞에서 예를 올리는 도문 스님.



죽림정사를 찾아온 충북 제천 통도사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나”는 용성 스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도문 스님의 첫머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용성 스님의 열 가지 유훈을 어느 정도 이루셨느냐고 묻자 “그저 흉내나 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신다. 곁에 있던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박상록 사무국장이 “스님께서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기도 늘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신다”며 웃는다.

도문 스님은 40년 가까이 용성 스님의 열 가지 유훈을 실현하고, 용성 스님의 교화지침인 불교의 생활화·대중화·지성화를 위해 일심으로 매진해왔다. 그 결과 열 가지 유훈 실현사업이 완료됐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용성 스님(1864-1940)은 독립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펼친 선교(善敎)를 겸비한 근대의 고승으로 도문 스님에게는 ‘할아버지 스님’이 된다. 도문 스님의 은사인 동헌 스님이 용

성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의 대표자로 참가해 구국운동에 헌신했다. 또 불교 대중화를 위해 <화엄경> 80권을 한글로 번역, 불교 역경에 획기적인 업적을 이뤘으며, 선사상 홍보와 사원자립정제를 위해 선농일치(禪農一致)운동을 전개했다.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3대 교화지침에 따라 공무원불자회와 난산출판소 수계법회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포교에 몰두, 불경과 조사어록을 100만권 넘게 배포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외부 법문과 용성 스님 저서와 경전을 쉽게 번역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비를 받으면 신도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회향한다.

도문 스님이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용성 스님의 가르침인 ‘오대원칙’을 강조한다.

“참선수행자와 종교지도자는 안목이 투철해야 하고 간경수행자나 교학연구자는 해박해야 합니다. 또 지계자(持戒者)와 도덕수행자는 엄정해야 하고, 종무나 임무 이행자는 공정해야 하며, 공무 또는 사무종사자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충실하면 전 인류가 편안해집니다.”

취재 도중 많은 불자들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 죽림정사를 찾아왔다. 스님은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불자들을 위해 법문을 했다. 이렇듯 스님은 찾아오는 손님을 물리치는 법

불경·조사어록 100만권 배포...100만 여명에 수계 방에 들어온 파리 잠자리채로 잡아 밖에 놓아줘



죽림정사 사부대중은 발우공양 때 청정에 불어넣은 천수다라니 밑에 천수물을 떠놓고 천수다라니가 천수물에 비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것을 발원한다.

“아침 발우공양을 하고 나서 원고 쓰고, 점심공양하고 원고 쓰고, 저녁공양하고 원고 쓰지요. 공양 뒤마다 잠선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원고 쓰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의사와 제자들이 무리하게 원고 쓰는 것을 극구 만류하지만 스님은 “용성 스님 일에 게을러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 방 한 칸에 세워둔 잠자리채가 눈에 들어왔다. 용도를 여쭙었다. “잠자리채가 아니라 파리채입니다. 파리방에 들어오면 죽일 수 없으니 파리채로 잡아서, 몸뚱이 닦아서 사람으로 다시 오라고 애기하며 놓아줍니다.”

이렇듯 계율에 철저한 도문 스님이 제자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종회의원 학담 스님, 前 해인사 율원장 해능 스님이 도문 스님의 제자다.

그렇지만 신도들에게는 자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한다. 법문을 가서 법문

이 없다. 인연 따라 왔으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것이라 생각에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대화로서 금금증을 풀어주고, 참선·염불·간경·주력·불사 수행 중 근기에 맞춰 교화한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이를 일러 ‘감응수기(感應隨機)의 교화방법’이라고 말한다. 불자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묻자 도문 스님은 “기자님이 제신 곳이니 진리지요” 하신다.

‘수처좌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서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다하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머금은 죽림정사는 가을 문턱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웅전 왼쪽 뒤편으로 용성 스님의 생가가 보이고 오른쪽 절 옆으로는 냇물이 흐른다. 인근 마을과 경계는 없다. 절이 마을이고 마을이 절이다. 여유롭고 평화롭다. 도문 스님의 모습도 그랬다.

글=한명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지금 있는 이곳이 진리

제자들에게 도문 스님(가운데)은 엄한 스승이다. 도문 스님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울퉁한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한다.

40년 가까이 용성 스님 유훈 실현위해 전법 활동

도문 스님은 도문 스님에게는 ‘용성 스님’과 ‘전법’이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도문 스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용성 스님이 남긴 107지 유훈을 실현하는 전법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문 스님은 전법활동을 하기 전까지 20년 넘게 선수행에 몰두했던 수행자다. 40년 동안 도문 스님을 모셔 온 원일화 보살(70)은 도문 스님을 이렇게 말한다.

“한 번 문을 잠그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누군가 문을 열어보면 살아계시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은사신 동헌 스님께서 주정자를 들고 들어가셔서 쥐 파먹는다고 아단을 지냈을까요. 앉아서 죽으면 쥐가 발바닥을 파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섭게 수행하셨지요.”

1935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도문 스님은 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남원 실상사, 의성 고운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정음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와 조계종 감찰원 감찰국장, 총무원 교무부장, 중앙총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장성 죽림정사에 추서하고 있는 스님은 경주 천통사·서울 대성사·네발대성사까지 조실을 맡고 있다.

<p>행</p> <p>보현사 명부전·정토원(남·북·경)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p> <p>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그동안의 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기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p> <p>보현사 주지 원봉 합장</p> <p>일시 : 2006년 9월21일 (음, 윤7월29일) 11시</p> <p>내용 : 1부 낙성법회 / 10시부터 2부 영산재 시연 / 오후2시 - 5시까지 3부 산사음악회 / 오후6시 - 오후8시30분까지</p> <p>보현사 대웅전 앞</p> <p>문의 : 보현사 043)259-4926</p>	<p>제4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및 선남선녀 템플스테이</p> <p>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p> <p>일시 : 2006년 9월23일 오후 6시 ~24일 오전 10시 까지</p> <p>일정 : 1. 산사음악회 / 23일 18시30분- 23일 22시00분 ~ 9월24일 10시</p> <p>출연 : · 티벳스님 전통불교 의식 (8명의 티벳 스님 뿌자 공연) · 가수 박정식 (천년바위) · 가수 최은혜 (전국 유명 노래가사) · 가수 고무밴드 (유명 가-타 리스트) · 가수 이성원 (소속세 우는밤) · 불교 합창단, 전국 선남선녀 회원의 장기자랑</p> <p>* 청주불교방송 제작 혜철스님 법문집 테이프.CD 전국 불교서점 판매</p> <p>문의 : 대성사 043)732-5560 혜철스님</p>	<p>행</p> <p>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p> <p>한국불교효증 석문사는 청원군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p> <p>석문사 주지 혜전 합장</p> <p>행사명 :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p> <p>예상 인원 : 관내 어르신 1천여명</p> <p>일시 : 2006년 9월16일 오전 10시</p> <p>장소 : 청원군 남이면 사무소 광장</p> <p>내용 : 봉행식 / 위안잔치 - 사물놀이, 국악마당, 노래공연, 북공연, 경로노래자랑 등</p> <p>문의 : 석문사 043)264-3008</p>
---	--	---

‘내가 제일’이란 집착 버리세요

도문 스님의 가르침

용 성조사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다섯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참선·염불·간경·주력·불사 수행을 해야만 아득다라삼막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에는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최상승선(最上乘禪) 등이 있습니다. 소승선은 관법수행이라고도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캐보면 근본도, 당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나온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함이 극치에 이르면 밝아집니다. 대승선은 나도 원래 비고, 일체 만법도 다 비었다는 아공(阿空), 법공(法空)을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나온 것이며, 이것을 알고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대승선입니다. 그리고 간화선을 최상승선인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간화선 수행을 합니다. 간화선의 3대 요건은 대본지(大根本) 대신근(大信根) 대의정(大疑情)입니다. ‘대본지’란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한 번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대신근’이란 자신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진실본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대의정’이란 대본지와 대신근을 바탕으로 공안을 참구하는 가운데 큰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수행은 이런 마음을 일으켜 자기의 본성을 보는 수행입니다. 자기본성을 보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삼매란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에 들어간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에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염불(念佛), 부처님의 교법을 생각하는 염법(念法),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수행하고 교화하는 스님들의 공덕을 생각하는 염중(念衆), 계를 지켜 도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염계(念戒),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는 염시(念施), 하늘나라의 과보가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염천(念天), 고요한 곳에서 도를 닦겠다고 생각하는 염휴식(念休息), 망상을 제거하는 데에

만 생각을 두는 염안반(念安般), 이 몸이 진실하고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염신(念身),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염사(念死)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수행하면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간경은 글자 그대로 경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현상만 보게 되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현상 이외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경전과 조사어록을 보아야만 지혜의 눈을 얻어 법안(法眼)을 뜰 수 있으며, 지혜의 눈을 얻지 못하고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주력수행을 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중요합니

다. 전생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금생에 이르도록 다생다겁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력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력수행은 다라니수행이라고 하는데, 다라니(陀羅尼)는 지혜 혹은 삼매, 또는 진언을 말합니다. 다라니의 힘은 네 가지가 있으니,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잘 기억해 잊지 않고 지니는 법(法)다라니, 모든 법의 한량없는 뜻을 모두 지니서 잊지 않는 의(義)다라니, 선정(禪定)에 의해 발한 말로써 신묘한 영험이 있는 작용을 하는 주呪(呪)다라니,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은 경지에 인주하는 인(忍)다라니가 있어요. 이처럼 다라니는 무량무변한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는 좋은 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사(佛事)는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일이나, 불사수행이란 이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덕과 지혜인데, 불사는 반드시 복(福)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복전(福田)을 알아야 합니다. 복전은 경전(敬田)·은전(恩田)·비전(悲田) 이렇게 삼복전(三福田)이 있는데, ‘경전’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배하고 찬탄하여 참회발원하는 것을 말하며, ‘은전’은 부모와 국가와 중생의 은혜를 모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선·염불·간경·주력·불사 수행을 하면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최고의 수행덕목입니다. 계율은 깨끗한 그릇과 같으며, 번뇌망상이 다 끊어지면 선정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야만 지혜의 맑이 비칩니다. 제정해 삼학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가르침이자 곧 부처님 가르침이며, 삼학을 닦는 것은 곧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번뇌·망상 등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에 얽혀 있는 것을 풀거나 끊어야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관념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소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 소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참선수행은 마음 일으켜 본성 보는 것 경전·조사어록 보며 지혜의 눈 얻어야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2>



앞 못 보는 어느 청년 이야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다섯 살 때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는데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어떻게든 시력을 되찾게 하려고 그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다시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에 빠져 보낸 청년은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큰스님이 법회를 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스님을 친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운명을 탓하며 사рам다운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어떻게든 먹이 높은 스님을 뵈고 그 분의 법문 한 자락이라도 들어보고 죽는 것이 그나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그 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스님이 법문을 여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로 인해 고통 겪는 사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자비심 아닐까요

앞을 보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지 청년은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큰스님의 손을 한 번 잡아보거나 가사라도 한 번 만져본다면 그 고되고 긴 여행은 의미가 있을 심야 청년과 어머니는 인파를 헤치고 가장 앞줄로 나아갔습니다.

스님은 사람들 틈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우는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를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스님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이 청년을 한번 견진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의사는 믿기 어려운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청년을 찾아 왔습니다.

어떤 젊은 스님이 자신의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ram한 자의 안구기증도 아니고 젊디젊은 스님이 제 눈을 떼어서 주겠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성을 지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청년은 무덤덤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있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젊은 스님은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는 처음에는 하늘을 날아올랐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흥분은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그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스님의 안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바라며 어머니와 함께 가져다온 도구를 다 팔아서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청년 앞에 벌어지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청년은 손을 내밀어 제 목의 행운을 움켜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사양하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비·희·사’ 이것은 내가 내 이웃과 낯선 사람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까지 품어야 할 네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흔히 ‘자비심’ 또는 ‘자비’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자(慈)는 다른 사람을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정 어린 마음으로 가깝거나 낯선 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비(悲)는 나의 벗에게 슬프거나 고통스런 일이 생기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참 안됐구나!’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게 일어난 일처럼 여겨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희(喜)는 나의 벗에게 생긴 기쁜 일을 내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捨)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맘껏 아파하고 맘껏 기뻐하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을 놓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톡톡 털어 순례 길에 나선 앞 못 보는 청년은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구호와 자비의 손길에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구기증을 제안한 젊은 스님을 염려하는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자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아픈데 다른 이까지 아프게 할 수 없고, 다른 이가 아플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자비심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용서>(달리라 라마·빅터 텐 지음, 류시화 옮김, 오래된 미래, pp.185~190)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미경(동국대영문학부) 역경원

불교계 최초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 부다피아 http://ad.buddhopia.com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卷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중앙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속 한맹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범주사 도공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